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학원생 입장에서 수업조교 또는 강사로서 어떻게 수업을 지원 또는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업조교 훈련 프로그램(Teaching Assistants Training Program, TATP)'이라는 별도의 유 · 무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워크숍, 인증 프로그램, 신규 조교 훈련, 교육키트 제공, 우수 수업조교 및 강사 표창 등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일부 학과에서는 수업조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유급의무교육의 일환으로 TATP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대학원생과 연관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예비교수자 또는 강사로서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을, 조교 대상으로 eTL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조교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수자 또는 대학 운영자는 수업조교를 어떻게 지도 ·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수업조교는 어떻게 수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공학은 온라인 학습과 기술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야로 온라인 학습, 교수와 기술, 그리고 강좌 및 강의의 오디오 · 비디오 녹화로 구성된다. 우리 센터가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관련 데이터를 개발, 운영, 지원하는데 비해, CTSI의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기술 및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는 대학 내 타 기관인 학문적 · 협력적 기술(Academic & Collaborative Technology, ACT)과 정보 · 기술 서비스(Information+Technology Services)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교수자가 온라인 교육을 계획, 설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점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토 도심의 도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낮은 높이의 건물로 이루어진 토론토대학의 외형 때문에 배낭을 맨 학생들이 없었다면 어디가 대학 내이고, 어디가 대학 외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다. 대학 전체 외형과 같이 CTSI 역시 넓지 않은 도서관 한 층의 1/4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일반 강의실과 PC 실습용 강의실 총 2개의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지만 그보다 작은 도시인 밴쿠버와 몬트리올에서도 개최한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토론토. 이러한 토론토를 닮아 소박한 듯 보이지만 강단 있는 토론토대학과 CTSI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후배에게 전하는 나의 글쓰기

이 내 경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학부생

제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가르침과 배움〉 웹진에 이 글을 실을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과분한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좋은 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서울대학교 내에 저보다 글을 잘 쓰시는 학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특히 2018년 대학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저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범이라기보다는 한 갈래의 선택지로 생각하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적 글쓰기와 "진솔함"

학부에서 4년간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진솔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글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대개의 리포트가 학술적 글쓰기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글을 평가할 때 쓰이는 진솔함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학술적 글쓰기에 문학작품과는 다른 특유의 진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의 느낌이 행간에 진하고 솔직하게 스미는 것에서 편지나 수필의 진솔함이 비롯된다면,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문제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성실한 고찰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고 웃는 존재로서의 "나"라기보다 탐구자로서의 "나"가 갖는 근면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진솔함의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수님들로부터, 글을 쓸 때만큼은 열정만이라도 학계에 기여하려는 학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비록 저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후배 여러분도 한 명의 학부생에 불과하지만, 뻔한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미어 썼다고 느껴지는 글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 진솔함

이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으로부터 : 투박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이런 진솔함을 갖추기 위해, 깊게 생각해보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까닭에 공교육 정규과정 외에 글쓰기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직후 다른 학우들에 비해 간결한 문체로 수려하게 글을 풀어내지 못하는 점에 일종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의 첫 조별과제에서는 자료조사와 PPT 작성을 자처하며 애써 글쓰기를 피하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달라진 것은 한 교양강좌에서였습니다. 당시 지도교수님께서 저의 글을 보시고 "읽기에 다소 뻑뻑하지만 나름의 문제의식을 묵묵히 풀어내어 다른 글보다 강렬하게 와 닿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글쓰기에 있어 "생각"이 갖는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글을 쓰지 못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으로 쉬이 펜을 잡지조차 못했던 종전의 자세를 개선하며, 물러서기보다 깊은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저만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체계화시켜 좋은 글을 쓰는 역량이 점차 발전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자들 가운데 이전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글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박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며,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싶은지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둘 생각을 풀어내다보면 글의 내용과 구성이 복잡해지고 표현양식 역시 정제되지 않고 거칠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생각의 틀을 자수지어 놓은 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위한 노력

다음으로는 이렇듯 글쓰기를 위한 "생각"의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기 위해 제가 기울였던 구체적 노력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수업에서 접하는 논문들을 "일부러 비판"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느껴져서 쉽게 수용되는 의견에까지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개구리와 같이 억지로라도 반론을 구성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제시된 주장과 깔려있는 전제에서도 논리적 공백이 있는 경우가 발견되곤 했으며, 이는 새롭고 참신한 연구지점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판 훈련은 추후의 글 작성 단계에 있어서도 반론과 재반론을 능동적으로 구성해내어 전체적인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수업이 아니어도 다양한 학술적 경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식의 개발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런 경험들로부터 스스로의 관심사를 확장시켜가려 했던 노력이 생각의 폭을 넓혀 좋은 글을 쓰는 능력의 계발을 이끌었습니다. 관련하여 교내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진행한 〈제헌국회회의록 강독회〉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강독회 도중 저는 당대 국회의원들의 인적 구성에 특히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방 직후의 총선거들을 나름으로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월남민 특별선거구 설치 논쟁"이라는 사건을 발견했으며, 여기에 범민족적 정치평등의 헌법적 공감대가 투영되어 있다는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국가론〉 수업의 조원들을 설득해 해당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한 결과, 제26회 교수학습개발센터 우수리포트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뿌듯함이 느껴지는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생각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을 느낀다면 글을 빠르게 써보는 것도 생각을 보다 확장 및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다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했던 구상들이 정교화되고 문제의식이 더욱 분명해짐을 느끼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상 단계에서는 떠올리지 못했던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론적 글을 쓸 때면, 내가 이 현상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글쓰기 실제의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그에 대한 좀 더 정합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튼튼한 뿌리가 갖추어져 있다면 줄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붓을 잡고 그려보는 일이 풍성한 묘목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맺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 저는 필자로서 여전히 미흡한 사람이며 그렇기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학교를 다니고 조금이

라도 더 많은 글을 써본 선배로서 후배 여러분께 제가 가졌던 글쓰기의 태도와 그 실천방법을 한번이라도 검토해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글쓰기 방식을 만들어나가는데에 작게나마 조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제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담의 방법

박 미 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매학기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글과 고민을 가지고 글쓰기교실에 찾아온다. 글의 종류와 주제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구상 단계나 개요 작성, 혹은 초고 작성 등 찾아오는 단계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그것을 더 나은 글로 만들기 위한 상담 방법 또한 한두 가지로 쉽게 정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글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문제제기가 뚜렷하지 않음'이라는 지점이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좋은 글이 갖춰야 하는 수많은 요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일일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쓰는 글이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며 문제의식을 가져보고, 그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자세는 능동적인 배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비록 학생들이 상담을 위해 가져온 글에서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문제의식을 상담 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주며 그것을 선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이나 글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글을 대략 두 종류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서론에서 주제나 연구대상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한 후, 문제제기나 연구방향이 논리적 흐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글은 도입 부분이 자세하고, 문제 제기나 연구방향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글의 경우 실제로 학생들의 내면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글은 왜 그 문제의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연구 지점으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자신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이나 관점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